

정치

개관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을 당한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수진영은 분열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3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1월 24일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5월 9일 실시됐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히자 2월 1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체의 41.08%를 득표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어 한국당 홍준표 후보 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6.17%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5·9 대선 이후 수개월 사이에 각 정당의 패장이 일제히 당의 간판으로 복귀했다. 패배한 후보들이 일정 기간 잠행하면서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역대 대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 새벽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한국당 출당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다. 그것도 '40년 지기' 최순실 씨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19년 정치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8년 4월 대구 달성에서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이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잡은 시점은 2004년이다. 당시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서 정치적 입지를 키웠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 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얻었다.

유력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후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거치며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친박(친 박근혜)계를 이끌었다.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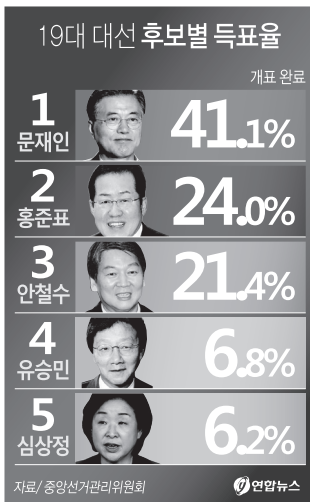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풍문으로 나돌던 최 씨와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각종 의혹이 견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위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8인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고난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검찰 소환조사와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31일 구속이 결정돼 '영어의 몸'이 됐다. 한국당은 11월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제명을 결정했다.

■ 조기대선 실시...문재인 대통령 당선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천342만3천800표(전체의 41.08%)를 얻어 당선됐다. 2위와의 표차는 역대 최다인 557만951표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2천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천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천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7천453표(6.17%)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사실상 확정된 5월 9일 오후 11시5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행한 당선 인사를 통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약속한 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승리로 민주당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으로서 2012년 18대 대선 패배 이후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그의 승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태가 불러온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구(舊) 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도층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수정당에 등을 돌린 데다 보수정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된 것도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

■ 보수정당 분열...현실의 벽에 부딪힌 바른정당 실험

바른정당이 2017년 1월 2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닷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가 중심

이 돼 2016년 12월 28일 "친박 패권을 청산하고, 진정한 보수의 중심점이 되겠다."며 '개혁보수신당'으로 출범한 지 28일 만이었다.

바른정당은 신생 정당이었지만 잠재력 면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대거 합류해 원내 제4당의 자격을 꿰찼다. 특히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보수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바른정당에 대거 합류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곧바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5% 정도로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당 지지율 역시 5% 수준으로 정당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결국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당내 내홍이 불거졌고, 4월 말~5월 초에 걸쳐 13명이 탈당을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바른정당 의원 수는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유 의원이 대선에서 6.7%의 득표에 그쳐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감했다.

바른정당은 대선 참패 이후 주요 정책에서 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보수 적통(嫡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당내에서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자강파' 간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6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적 자강파인 이해훈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74일 만에 낙마했다. 지도부 공백 속에 통합파와 자강파 간 내분은 극으로 치달았다.

결국 11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통합파 9명이 집단 탈당해 의원 수가 11명으로 줄어들면서 교섭단체의 지위가 무너졌다. 그 직후인 '11·13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권을 잡으며 대선 패배 후 6개월 만에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섰다. 유승민 대표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국민의당과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 반기문 "순수한 뜻 접겠다"...대선 불출마 전격 선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7년 1월 12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3주 만인 2월 1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귀국 전부터 야권의 공세에 시달렸던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후에는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해 입길에 오르내렸다. 귀국 전에는 상한가를 치던 지지율 역시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한때 독보적인 1위를 달렸지만, 귀국 3주일이 지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로 주저앉았다.

또 반 전 총장이 내세운 정치교체, 분권형 개헌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연대는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러브콜'을 보낸 야권 인사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심지어 고향인 충청권 의원들조차 합류를 망설이는 상황이 됐고, 결국 세(勢)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 합종연횡을 시도했지만,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이 중도하차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국내 상황에 어두운 데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무

엇보다 무소속으로 버티기에는 인력, 조직, 자금 등 모든 측면에서 압박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대선 패장의 귀환…일제히 당 간판으로

5·9 대선의 패장(敗將)들이 일제히 각 당의 간판으로 복귀했다. 과거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일정 기간 잠행하면서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들의 정치적 재개가 한층 빨라진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가장 먼저 등판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홍 대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귀국해 당권 도전에 나섰다. 7·3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홍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청산을 이뤄냈다. 또 전국을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보수야당으로서 선명성 강화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도 받아들여 '보수대통합'의 기초를 쌓기도 했다. 그러나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실화'에 휩싸였고, 인적청산 과정에서 '독불장군식'으로 당을 운영해 사당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등판했다. 안 대표는 대선 이후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 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자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안 대표는 취임 이후 '안철수가 변했다'라는 의미의 '변철수'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분위기를 살려 나갔으나 당의 노선을 놓고 호남 중진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중도층과 '합리적 개혁보수'까지 아울러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계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막차를 탔다. 유 대표의 경우 대선 패배 후 일선에서 물러나 한동안 몸을 낮춘 로키(Low-Key) 행보를 보였으나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불거지며 당이 흔들리자 총대를 메게 됐다. 유 대표는 11월 13일 치러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1위에 올라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반토막이 난 당을 추스르면서 한국당과 차별화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아무런 당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했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해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앞장섰다.

■ 법정 시한 나흘 넘겨 새해 예산안 처리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 새벽 진통 끝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각각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

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5천억원 줄었고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원)이 각각 7천억원, 1천억원 순감됐다. 반면 2017년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천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정책 기초와 청년세대를 위한 최저임금을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표결 이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별도의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뒷거래를 통한 야합에 의한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 개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 후보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내걸고 대권에 재도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와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보수정권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국가운영의 틀을 다시 세우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